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들이 빛난다

전북대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 이준형·김어진·김다솔 등 3명 SCI급 논문 등재돼 화제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이 잇따라 SCI급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센터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 교수)에 따르면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5기 수료생인 이준형(전북대의학전문대학원 3년)씨가 최근 이용철 교수팀과 함께 SCI 논문(과화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됐다.

국제학술지 Medicine(IF = 5.723)지에 게재된 이 논문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종격동의 데스모이드 종양에 대한 증례 연구'로 이준형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1기 수료생인 김어진(중앙대의대 졸업, 현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씨의 임상관련 논문도 Medicine 지에 게재됐으며, 3기 수료생인 김다솔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5기 수료생인 이준형씨가 최근 이용철 교수팀과 함께 SCI 논문(과화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됐다.

(전북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현 전북대병원 인턴)씨도 같은 학술지에 'Varicazob로 성공적 치료된 종괴 형성형 아스페르길루스 기관지관지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수료생들의 연이은 성과에 대해 이용철 책임지도 교수는 "기획의도에 적합한 학생들의 선발

여러 튜터들의 세심한 지도와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공동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임상실습 교육 동안 틈틈이 논문 집필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이 돋보이며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연구하는 임상 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전북중기중앙회, 7개 시설에 700만원 은누리상품권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분부는 3일 전북도청에서 어깨동무복지재단 등 7개 시설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나눔은 (재)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동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현준 본부장은 "살을 맞아 불우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진심어린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어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군산 성원교회,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00만원 전달

군산 성원교회(담임목사 강무순)는 3일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강무순 목사는 "성원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서울 연신교회 이순찬 목사님의 뜻에 따라 함께 예수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예수병원이 그동안 펼쳐온 선교와 봉사에 감사하며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시 중앙동 주민센터에 설 앞두고 온정의 손길 이어져

3일 중앙동 주민센터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관내 성암교회(성금 100만원), 상진신협(성금 50만원), 햇불라이온스(쌀 10kg 50포)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택 중앙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 중인 여러 단체의 모습이 중앙동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주신 성금과 쌀로 어려운 이웃에 풍성한 명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

인후3동 새마을 협의회(회장 황승일)는 3일 인후동(동장 최승식) 주민센터를 방문해 쌀(10kg), 라면(30개입), 달걀(4판), 화장지(20롤), 사과, 김 등 8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최승식 인후동장은 "올 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워도 매섭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천사들이 많아 마음 속 깊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며 "인후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1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8층)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구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985-418	중원지사 010-8088-6074	남원지사 632-3986
상정지사 010-2333-4701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55
서신지사 272-9477	군산시사 041-6157	순창지사 659-0444
홍성지사 010-8965-9635	익산시사 859-4293	부안지사 594-0221
무주지사 010-3302-4250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전력 남전주지사, 독거노인·한부모가정에 쌀 등 전달

한국전력 남전주지사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한전 사회봉사단원들은 행정관서의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에 쌀, 라면, 참치세트 등을 전달했다. 정관영 지사장은 "고품질의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 덕진구에 성금 1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센터장 한승호)는 3일 덕진구청(구청장 정태현)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최화숙)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봉시장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센터장 한승호)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0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 후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에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지정기탁 성금은 일반한, 경로당 어르신 영양중식,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저소득 소외계층 세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된다. /김영재 기자

익산마한로타리클럽, 김 150상자 전북서부보훈지청에 기탁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익산마한로타리클럽에서 지난 2일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물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익산마한로타리클럽에서 김 150상자를 마련하였으며 사랑의 물품은 익산 김제 고창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보훈가족 150가구에 전달되어질 예정이다. 한편 박정수 익산마한로타리클럽회장은 "다가오는 설에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 보훈가족을 생각하니 도리어 마음이 풍족해지며 모든 보훈가족들이 2016년을 절망이 아닌 희망의 해로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하는 지역 단체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은 지난해 겨울에도 김장김치 50상자를 후원한 바 있으며, 9월 추석을 맞아 쌀10kg 50포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사랑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은행장학재단, 도립여성중고 졸업 만학도 10명에게 장학금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3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16회 졸업식에서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아 뜨거운 졸업의 영광을 안은 만학도 1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70명(중 38명, 고 34명)을 비롯하여 김일제 행정부지사 황호진 부교육감,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김경구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만학도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는 뒤늦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4년제 대학에 합격해도 진학을 망설이는 만학도를 돕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2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졸업한 추영숙씨(54) 등 6명의 만학도들은 각각 기전대학교 등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최순남씨(69세)등 4명의 만학도들은 한일장신대 등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정영수 기자

김제 교월동 새마을지도자회 사랑담은 '떡 나눔 행사'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이창래)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 36개소에 떡국떡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갈수록 심화되는 핵가족 사회에 자칫 소외되고 외로울 수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하자는 회원들의 자발적 마음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여느 해보다 긴 연휴로 그 의미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창래 회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과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새해 떡국 나눔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주위의 이웃과 함께하고자 회원들의 사랑을 담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준 새마을지도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소중한 정성들을 잘 모아서 튼튼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나누어진 떡국떡은 설 명절 전에 각 경로당에서 준비하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떡국 잔치에 쓰여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진흥청 직원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3일 설날을 맞이하여 경로식당 배식 봉사 및 후원물품 전달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은 장수군에 2015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촌진흥청 이법승 농촌지원국장 외 직원 10명이 참여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경로식당 배식 봉사를 통해 나눔 문화 활동에 동참하였다. 또한 이날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마련한 후원물품과 함께 더욱 풍성한 식사시간이 되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김진 관장은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지원해주신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을 비롯한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건강과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시 아중발전협의회, 떡국 나눔행사

아중발전협의회(회장 김경곤) 회원 50여명은 3일 우이2동 주민센터(동장 이병권)에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설맞이 세배 및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경곤 아중발전협의회장은 "새해를 맞이해 자식같은 마음으로 떡국나눔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우이2동장은 "봉사활동을 펼쳐준 아중발전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어린 떡국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청, 원로 경우회원 위문·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설명절을 맞아 투병 경찰관과 원로 경우회원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에도 나서 지역경찰 활성화에 동참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투병경찰관 14명, 순직유가족 3명, 원로 경우회원 등을 찾아 사랑과 정성이 담긴 위로금품을 전달한데 이어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내고장 물건 사주기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찰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경찰의 위문 방문을 맞은 전모(76)씨는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니 가족과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남부시장 상인 김모(48)씨도 "많은 경찰관들이 시장을 찾아 물건도 사주고 추운날씨에 건강 잘챙기려는 따뜻한 한 한마디가 가슴이 뜨거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이웃사랑 나눔 봉사와 전통시장 장보기는 전북경찰 직원들이 급여의 끝잔 모으기와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수익금 등으로 마련했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전북경찰은 사회적 약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 보살피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이노영 기자

제26대 덕진구청장에 정태현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취임

전주시 덕진구청장에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3일 취임했다. 신임 정태현 청장은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진솔하고 화통한 소통, 발 빠른 현장행정, 열정적인 업무추진력으로 역동적이면서도 따뜻한 구정을 책임질 책임자라는 평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임기간 동안 전통문화 수도 전주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전라강영 복원의 본격적 추진과 태조어진 불안행렬 등의 전주다운 문화 콘텐트를 확충했다. 한국전통문화재단 개원을 통한 한문화의 대중화·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7 FIFA U-20 월드컵 및 개막전의 전주 개최로 체육중심 도시의 위상을 확립, 품격 있는 문화도시,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재 기자

